

# 주민들의 보금자리로 돌아온 폐교

1999년 3월 폐교됐던 남해 갈화초등학교. 요즘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구구단 외는 소리가 아닌 '첼커텍, 첼커텍' 베 짜는 소리가 들린다. 분홍빛으로 단장한 이 학교가 지역민들을 위한 새로운 일터로 변신하고 지역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흥겨운 소리였다. 불교 사회 복지법인(대표이사 호천) 산하 남해지화 후견 기관관장 법수는 그동안 폐교로 방치됐던 고현면 갈화초교를 경상남도로부터 위탁받아 '보물섬 삼베마을'로 변화시켰다.

1939년에 개원한 갈화초등학교는 56년 동안 170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근내 측은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중심학교와 통합되면서 1995년에 문을 닫았다. 그 후 학생들이 졸업하며 비행을 일삼는 우범지역이 되어 한동안 남해 지역의 골칫거리였다.

호천 스님은 "낡은 학교를 인수해 지역 발전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전통을 체험하는 학습의 공간과 함께 삼베를 이용한 각종 상품을 개발해 지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단장한 '보물섬 삼베마을'의 내부

## 남해 갈화초교 '보물섬 삼베마을' 변신 전통체험학습장 마련·삼베 상품 개발도

는 옛 학교의 정취를 살려 아담하게 꾸며졌고 각 교실마다 사랑방, 전통놀이방, 풀뿌리방 등의 체험학습장이 마련됐다. 삼베마을 교육장으로 준비된 영상시설, 손님들을 위한 다실 등에도 정성의 손길이 가득하다.

앞으로 '보물섬 삼베마을'은 농한기 등에 지역민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남해 지역에서 전통을 이어 오던 삼베기술을 활용해 일 자리를 창출한다. 생산된 삼베는 전국 각지에 판매되며 중국산에 밀려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동구매를 통해 지역민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 천연염색을 이용해 소품 및 제작 판매를 유도하고 질 높은 품질 개발에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해군 유류 휴경지를 발굴하고 경작해 삼베작목반으로 발전시키며, 전통 삼베작업장 관람 및 베를 짜기 체험 등으로 관광객 및 어린이 체험학습장으로 개발한다는 복



보물섬 삼베마을의 전경(사진위)과 삼베를 짜는 지역주민.

# 산사에서 '秋憶 만들기'

### 백양사·심곡암 등서 단풍축제 풍성

단풍이 그야말로 절정을 이루고 있다. 오색의 단풍으로 곱게 단장한 산사는 다채로운 무대를 마련하고 불자들에게 '단풍축제'를 즐기라 손짓한다.

아기단풍이 곱게 물든 장성 백양사주지 성오는 11월 3-4일 '쌍계루의 추야몽(秋夜夢)'을 주제로 '2007 백양사 아단법석'을 개최한다.

3일 오후 3시 쌍계루 앞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후 4시 산사음악회가 개최된다. 정태춘, 박은옥씨가 작은 음악회로 꾸민다. 이어 오후 8시에는 천진암 특설무대에서 달빛을 받으며 오솔길을 따라 천진암까지 걸어보는 '달빛걸기' 행사가 열린다.

4일에는 참사람교육원에서 백양사가 자리 잡고 있는 '백양산 국립공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백양산 국립공원 지정 의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올바른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4일 오후 2시부터는 대웅전 앞마당에서 지역과 불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영산대제가 봉행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쌍계루 앞에서 생명 나눔 캠페인, 인도음식 판매, 복령 동포돕기 모금, 지역특산물 판매 등

의 '아름다운 나눔마당'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행사 기간 동안 폐이 스페인팅, 단주 만들기, 초상화 그리기, 소원등 달기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된다.(061)392-7502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심곡암(주지 원경)은 올해로 10번째 단풍축제를 개최한다. 서울 도심에서 불과 20여 분 떨어진 심곡암은 너럭바위에 앉아 단풍과 맑은 공기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단풍축제는 11월 4일 열리는 산사음악회로 절정을 이룬다. '종교의 화합을 통한 평화의 연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가톨릭 프란치스코회의 심실스텔 수사도 함께 동참해 종교화합의 의미를 더한다.

4일 오후 1시 개최되는 산사음악회는 진명 스님의 사회로 '갯바위'의 가수 양하영씨, 플루트 연주자 기원 스님, 불자가수 이진호씨,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정미씨, 가야금 연주자 민소연씨의 공연이 이어진다.

한편, 10월 26일 오후 2시에는 심곡암에서 서울시민과 불자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가 봉행된다.(02)914-8860

여수령 기자

# 부산서 '금강경 법회' 잇달아

### 부처님 마을·미타선원, 고승 초청·특강 등 마련

반야부 경전 가운데 불자들에게 가장 많이 독송되는 조계종의 소의 경전 <금강경>을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부산에서 잇달아 마련된다.

먼저 부산 해운대 부처님 마을(주지 호법)은 '금강경 산립대법회'를 열고 7인의 고승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0월 16일 일제 법문에서 서울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은 "종교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혹은 꿈의 세계를 추구하며 세간법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금강경>을 보면 부처님이 공양하고 가

사를 입고 탁발하고 발을 씻는 일상 생활이 모두 다루어져 있다"며 "일상생활이 여시(如是) 즉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금강경> 제1분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주지 호법 스님은 "<금강경>의 큰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의 협조와 후원 덕분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법문을 하나도 빠짐 없이 경청하고 큰 감로의 꽃비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처님 마을에서는 10월 23일 통도사 정우 스님, 30일 전 제주 약전 사 회주 혜인 스님, 11월 6일 전 직지사 주지 지광 스님, 13일 조계종

은혜사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 20일 부산 화엄정사 회주 각성 스님, 27일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의 <금강경> 법문이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이어진다.(051)704-0332

부산 남포동 시민선방인 미타선원(주지 하림)에서는 재가불자들을 위해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의 '금강경 특강'이 마련된다.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25일까지 6개월간 열리는 이번 특강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시작하며 매달 동참금은 3만원이다. 하림 스님은 "이번 특강은 부산 지역 불자들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많은 불자들이 참석해 진리의 법을 만나기를 바란다"고 동참을 권유했다.(051)253-8687

하성미 기자

# 느티나무 조각에 새긴 '信心'

### 11월 1일 부산백스코서 전시회



기룡관음, <김광현 작>

느티나무 조각상이다. 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느티나무 조각상이 아니다. '信心(信心)의 표현', 괴로움 속에서 어려움을 두고 나타나 자비를 베푸는 관세음보살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이 담긴 것이다. 불자들의 신심이 어우러져 더욱 의미가 깊어질 조각전시회가 열린다.

불교 전통문화 이어가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제조각회(회장 김광현, 이하 문화제조각회)는 부산 백스코 컨벤션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11월 1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열고 7일까지 160여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60여명의 지정문화제 조각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문화제조각회가 10번째 맞는 결실의 자리다.

김광현 회장은 "민족성을 보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봐야하는데 우리나라의 불교문화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으로 오랫동안 단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교문화의 전통을 바르게 이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시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 바로 잡습니다

10월 17일자 649호 B5면 '고승 초청 철야명징진 대법회' 기사 중 '수덕사 총무 무에 스님'을 '수덕사 무에 스님'으로 고칩니다.



## 대전비구승가회, 보살계 수계대법회

대전불자 보살계 수계대법회가 10월 13일 대전 연정국악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

조계종 대전비구승가회(회장 현광)가 창립 17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대법회에는 전계사 성수 스님, 화엄사 도천 스님, 법주사 혜정 스님을 비롯한 지역 원로스님과 불자 1500여 명이 참석해 십중대계(十重大戒) 수계의식을 봉행했다.

현광 스님은 "계를 지함으로써 가정과 사회가 정의로워지고 성불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혜철 대전총부복지사장

전통한식기와 전문생산업체 한식형 청회색기와(문화재용) · 한식형 변색기와 · 한식형 KS기와 · 한식형 유약기와

INNOBIZ 기업



# 반세기 이어온 장인정신 고령의 혼입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의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 업체로서 50여년간 국내 주요 궁궐, 사찰 등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Tel 054-954-8008 Fax 054-954-8308  
Goryeong Rooftile Co., Ltd. www.rooftile.co.kr gr@rooftile.co.kr

- 조달청 우수제품
- ISO 14001 인증
- 건마크 표시허가
- KS 표시허가
- 중소기업 우수제품
- 정부성능인증제품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 병력특례지정업체

주요납품처 해인사, 구인사, 직지사, 불국사, 조계사, 관문사, 삼광사, 월정사, 법주사, 동화사, 은혜사, 쌍계사, 범어사, 통도사, 고은사, 화엄사, 운문사 등